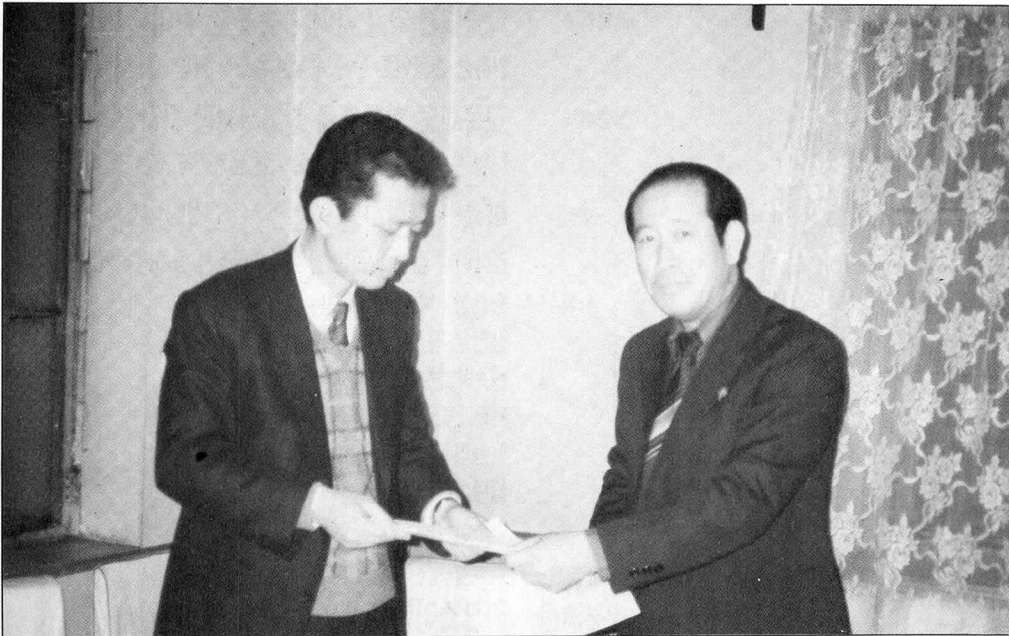


南北 저작권계약 실효성 논란

여강출판사 北譯「이조실록」 둘러싼 정부 부처 이견 노출



지난해 1월 23일 여강출판사 사장 이순동씨(좌)와 평양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윤춘현씨(우)가 「이조실록」 복제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남북한간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등 계약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강출판사가 북한의 「이조실록」 4백권, 5백질을 출판함에 따라 북한과의 출판계약 및 저작권 유효성 여부가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의 의견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여강출판사와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지난해 1월 23일 체결한 「이조실록」출판권 설정계약 행위자체는 당국의 허가를 거쳐 이루어진 만큼 처벌의 대상

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일원은 이 계약이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일 뿐 그 배타적 권리가 국내에서 보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일원쪽은 북한의 출판물을 간행하는 계약행위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첫째는 남북한간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쌍무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은 지난해 9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저작권문제를 협의하고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 제2장 9조에서

“남과 북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했으나 아직 쌍무협정을 맺은 상태는 아니다.

둘째는 일반인에 대한 「이조실록」판매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조실록」은 현재 특수간행물로 분류돼 특수간행물 취급허가를 받은 일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에만 수입본이 한정 배포돼 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여강출판사의 「이조실록」 출판은 이런 전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일반인에게 판매할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 처벌문제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지난해 9월 문화부 산하의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가 동위원회 발행의 저작권 상담조정사례집을 통해 「이조실록」의 경우 출판권을 설정한 출판사가 남쪽에서의 배타적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례집은 남북한 당사자간에 맺은 저작권 계약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출판권 설정행위나 저작재산권 양도행위는 절대적 권리의 부여로, (남한의)제3자들은 남한인에게 설정 또는 이전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책의해조직위, 대학로서 도서전

책의해 조직위원회,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예술평론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도서전시·판매전이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동승동 대학로 면에서 열린다.

문화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책의해 홍보와 출판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독서의 저변을 확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행사기간 중에는 ‘저자와의 대화 및 사인판매’를 특별히 마련, 저자와 독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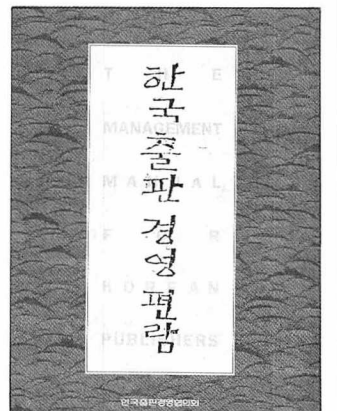
또한 ‘구간명저 신시장’ ‘편집자가 권하는 책 한권 코너’ ‘우리들의 책, 이런 책을 내주세요’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한다. ‘구간명저 신시

장’은 출판사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교환·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자가 권하는 책 한권 코너’는 출판사에서 3년 이상 재직된 편집장이 권하는 책을 10% 할인해 전시·판매한다. 또한 ‘우리들의 책, 이런 책을 내주세요’는 독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창구로 쓰여질 예정이다.

「한국출판경영편람」 발간돼

한국출판경영협의회(회장 안재관)가 「한국출판경영편람」을 발간했다.

회원사의 도서목록과 출판관계법, 도서관매관법, 출판관계서법



등의 법률과 함께 도는 할부도서출판사와 전문판매회사, 제작 및 기획·광고 등 출판에 관련된 회사의 개략적인 안내를 실고 있다. 모두 948면으로 가격은 3만원이다.

흥국생명, 주부 독서실태 조사

주부들의 한달 평균 독서량이 한권이 못되는 0.8권으로 조사됐다.

흥국생명이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5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주부들의 독서량은 매달 0.8권이며, 10명중 2

100쌍의 부부가 말하는

행복한 결혼생활

“50년 행복을 위해 5시간만 투자하세요.”

캐서린 존슨 지음
결혼, 사랑이 전부 아니지만 사랑이 첫째. 문제는 사랑을 지속시키는 방법이겠죠. 결혼 생활에 성공한 부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곧 '행복한 결혼생활'을 펼쳐 보세요. (결혼에 대한 당신의 통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은 각오하세요.) 미혼자가 읽으면 결혼에 자신이 생기고 기혼자가 읽으면 행복이 두 배로 됩니다.
정가 : 7,000원

눈물은 광대의 함께 왔다.

생화학무기를 둘러싼 과학자들의 암투와 테러!

요하네스 마리오 짐벌 작
이지은 역
서커스 공연 도중 갑자기 두 광대가 기관총을 꺼내 관객을 향해 난사한다. 그 자리에서 당대의 최고 유전학자인 겔호른 박사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여기자의 아들이 즉사하는데...
정가 : 5,500원 (상하각권)

대 변 혁

20세기 말의 인류의 위기를 경고하는 정치경제 예측서

J.D. 데이비드슨/W. 리스모그 著 김만기 역
미래는 언제나 대비하는 자의 편이었다
● 20세기 최후의 대공황 대수(미) 전세계적으로 진행중
● 부동산가격의 대폭락 -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파산
● 대대적인 실직상태 발생 - 특히 중산층의 실직 증가
● 국제질서의 혼란 - 양소국간 대립집단, 시조적의 핵무기 보유
● 이슬람 세계의 재등장 - 암시들을 대신하여 회교주의 발호...
베를린 장벽의 붕괴 90년 도쿄 증권시장의 침체까지 정확히 예견했던 두 저자의 냉정한 통찰, 21세기를 준비하는 지혜를 찾으십시오.
정가 : 12,000원

동아출판사 ☎861-4818

명만이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부들의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30분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여가시간을 책읽기에 소요하기보다 이웃과 어울리기에 보내고 있어 책읽기에 대한 의식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상준씨, 세종문화상 수상해

93년도 제12회 세종문화상 교육 부문 수상자에 김상준 국정교과서 이사장이 선정 발표됐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9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거행됐다.

10월의 책의 인물에 이인표회장

책의해 조직위원회는 '10월의 책의 인물'에 에스콰이어그룹 이인표(71)회장을 선정했다.

이인표회장은 83년 종로구 사직동에 사회과학도서관을 세운 뒤 90년부터는 어린이도서관 설립사업을 펼쳐 국내에 13개, 해외에 5개 등 모두 16개 지역에 인표어린이도서관을 세우는 등 청소년 독서운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책의해 조직위원회는 '책의 날'인 10월 11일 출판문화회관 4층에서 선정패를 증정했다.

美 토니 모리슨 노벨문학상 수상

흑인여류작가 토니 모리슨이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스웨덴 한림원 노벨위원회는, 토니 모리슨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환상의 힘과 시적 함축으로 특징지어지는 소설을 통해 미국의 현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정수를 살려냈다"고 밝혔다. 미국 흑인여성으로서 첫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토니 모리슨이 작품으로는 「과란 눈」 「제즈」 「끝없는 방향」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10월의 문화인물 최현배선생

문화체육부는 한글날이 들어있는 10월의 문화인물로 우리 말과 글을 같고 닦는 데 평생을 바친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선생(1894~1970년)을 선정했다.

이에따라 문화체육부는 최현배선

생의 업적을 기리는 학술대회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기념문집 발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갖는다.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다.

기념강연(23일 오전 10시 한글회관 강당), 특별강연(28일 오후 2시 30분 연세대백주년 기념관 강당), 제15회 외솔상 시상식(30일 한글회관 강당), 무용공연(29~30일 문예회관 대강당).

도서류가 복사대상 대부분 차지

저작권심의위 실태조사, 일반인 복제경험 60%나 돼

국내 처음으로 실시한 복제실태 조사결과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경험률이 60%에 이르고 횡수는 1개월에 1~2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용권)가 서울리서치를 통해 서울시민 13세 이상 65세 이하 1천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적복제, 녹음, 녹화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중 71%(731명)가 저작권이란 용어를 듣거나 본 경험이 있었다. 또 41.9%(422명)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또는 가정내에서 복사, 녹음, 녹화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에 대한 의식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조사 대상자중 54.0%(555명)였고 이들이 가장 많이 복사한 분야는 '도

서류'였다. 복사장소로는 전문복사점(11.2%)보다는 문구점(59.5%)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우사 창립27주년 기념식 거행

범우사(대표 윤희두)는 지난 9월 25일 창립 27주년을 맞아 대한출판



지난 9월 25일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린 범우사 창립27주년 기념식 및 범우장학금 수여식. 문화협회 대강당에서 기념식 및 범우장학회 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삼국지」 한 편만을 선정해 실시한 이번 독후감 공모에는 이상보 전국민대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아 16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학·일반부=금상: 강성진, 은상: 정창순·노재규, 동상: 허남욱·소재훈

▲중·고등부=금상: 김자경, 동상: 박유진·김성민, 장려상: 서선영·박재환

▲국민학생부=금상: 이완, 은상: 조민교·신선미, 동상: 김혜리, 장려상: 최성규·윤관호.

어린이도서연구회, 권장도서 발표

어린이도서연구회는 '93년 가을에 권하는 10권의 책'을 발표했다.

저학년(1~2학년), 중학년(3~4학년), 고학년(5~6학년)으로 나누어 발표된 이번 목록은 국내외 창작물을 비롯, 모두 30종이다. 선정도서는 다음과 같다.

▲저학년=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 짱구네 고추밭 소동, 비릴로의 동물농장, 병풍속의 호랑이, 자장

이가 막 우네요, 꿈돌이는 내 친구, 한국의 자연탐험.

▲중학년=겨자씨의 꿈, 뿔개의 모험, 트리깍의 선물, 색깔을 가릴 줄 아는 손, 어머니 무명치마, 현옥이 일기, 문화부가 뽑은 인물, 파브르 곤충기, 신나는 세계여행, 휘파람 부는 아이.

▲고학년=점두이네, 우리들의 영등폭포, 노랑가방, 생각에도 길이 있다, 꽃속에 묻힌 집, 작은 아이들의 큰 이야기, 깨끗한 마음 만들기, 푸른 지구를 되살리는 민들레교실, 소설 북한여행,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까.

종합문예지 「지평의 문학」 창간

부산지역 문인들이 새로운 종합문예지 「지평의 문학」을 창간했다.

최영철씨 등 부산지역 문인 외에 임동화, 소설가 나희덕, 김소진씨 등 전남과 서울지역의 젊은 문인들에게도 지면을 개방했다. 특집으로는 '한국문학에 있어서의 바다'라는 주제로 「한국문학속에서 해양문학이 갖는 위상」 「한국현대소설이 갖는 바다의 인식지형」 「바다의 상상력과 그 시적 형상화」 등의 글이 실렸다.

열음사 「문학정신」 10월호로 복간

열음사는 금년 4월호를 끝으로 정간했던 월간문예지 「문학정신」(주간 박덕규)을 복간했다.

월간 「문학정신」 복간호는 10월호부터 판형을 확대하고 내용을 대중적인 문예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복간호에서는 '대중문학, 두 개의 얼굴'이 특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편집자 몇 분을 찾습니다

재능있는 편집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 많은 수의 출판사가 문을 닫았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출판사는 너무 많은데, 재능있는 편집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능있는 편집자들이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맞추어 줄 수 없는 혼자가 되어 외롭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편집 일이란 혼자서 하는 게 아닌 만큼, 아무리 재능있는 편집자라도 경쟁한 맞잡이가 없으면 시시한 일로 재능을 낭비하게 마련입니다. 그들 중 단 몇 명이라도 한 군데서 만나면, 재능과 재능이 만나 증폭되는 멋진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저희 정신세계사는 재능있는 편집자들이 모여 일할 수 있는

곳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와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희에게 당신을 추천해 주십시오. 저희는 재능있는 편집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아는 만큼의 대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집 일 중 어느 한 면에 특히 자신이 있으면서, 나머지 전과정에 대한 관심과 안목을 웬만큼 갖춘 남자분이나 여자분, 나이는 되도록 서른 살이 넘지 않고, 되도록 짧게라도 경력이 있는 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신의 역량이 발휘된 편집물 하나를 '만드시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겉봉에 '입사지원서류'라고 꼭 밝혀 주십시오.) 이력서

에는 사진을 꼭 붙여 주시고, 자기소개서는 B5 백지 한 면에 꼭 차게 써 주십시오. 이들을 오는 10월 30일까지 도착되도록 보내 주시면, 저희와 인연이 닿는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만 오는 11월 10일 이전에 저희 쪽에서 개별적으로 면접 일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를 하시면, 지금 알려드린 이상으로 알려드리지도 못할 뿐더러, 저희가 그 전화를 받는 시간만큼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보내신 서류는 돌려 보내지 않습니다.

정신세계사 기획실장
강무성 올림

정신세계사 우편번호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502호